

JÖRN LEONHARD, "Language, experience and translation: Towards a comparative dimension", in *Political Concepts and Time: New Approaches to Conceptual History*, Edited by Javier Fernández Sebastian(Cantabria University Press, and McGraw-Hill Interamericana de Espan, 2011)

= 사회구조에 대한 기존의 구조주의 접근을 극복하고 개념사 연구로

- 언어와 수행, 공간의 재발견

; from the linguistic to the performative and spatial turn

= 경험, 역사적 경험의 개념으로부터 출발

; 기존의 단선적 인과개념을 넘어서 경험의 복잡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

= 경험이란 무엇인가?

; 경험의 주관성. Experiences refer both to a stream of past events and to the various levels of subjective perceptions and interpretations of these events.

; 경험 해석의 주관적 틀의 중요성. In contrast to mere observations, experiences are characterized by the application of interpretative knowledge, i.e. a reservoir of linguistic and performative codes, including leitmotifs, topoi, metaphors, dichotomies and arguments.

; 개인과 집단은 경험을 구조화하는 해석의 기제를 사용함. They allow an individual or a group to structure the constant influx of information generated by events and actions. Structuring information is a basic precondition for generating, formulating and communicating meaning.

; 결국 경험이란 개인과 집단의 내러티브를 간주관적으로 만들기 위해 언어적 다양한 장치를 통해 해석하는 과정이다. Hence, experiences oscillate between each individual's perspective and collective narratives, making possible individual and inter-subjective communication. Experiences, as expressed in concepts, arguments or metaphors, allow meaningful orientation.

; 경험이 역사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겪은 역사적 사실 자체로서의 객관주의와 해석되는 주관주의 역사 간의 절충점이 모색됨. 이 과정에서 경험이 어떠한 언어로 구조화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개념사의 의미. In that way, experience as a basic paradigm in historical analysis transcends not only the traditional schism between 'real' history, as visible in so-called hard facts and structures, and the way in which past contemporaries dealt with their environment, but also bridges the apparent gap between language and action.

= 언어와 역사적 경험

;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을 소통가능한 형태로 구조화, 체계화하는 작업에 주목할 필요. importance of language as a prime factor in the structuring, articula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individual's perception of his politic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

= 본 논문의 목적

1. 역사적 경험에 대한 진전된 이론을 제시
2. 언어와 경험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경험의 분석틀을 고안
3. 역사적 과정에서 언어와 경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언어적 차원 자체의 동학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의미론적 차원에서 언어가 어떻게 비교되고, 이전되고, 수용되고, 혼합되는가를 밝힘.

### **Towards a theory of experience: heuristic, methodological and epistemological dimensions**

= 역사적 경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19세기에 비롯

; 기존의 철학적, 사변적 역사에서 실증적인 경험에 기초한 역사로 대전환. growing distance between speculative epistemology and philosophy of history on the one hand and the systematic research of empirical evidence of the past on the others

= 대표적인 실증적, 체계적 역사가로 Wilhelm von Humboldt와 Leopold von Ranke

; 이들은 분석적 역사 개념을 발전시켜서, 역사적 경험을 사변적 토의와 구별하려고 시도.

= 이를 위해 Three heuristic dimensions of experience가 필요

; 통시, 공시, 영역의 구분

; 경험과 언어의 역사적 변천; 공간적 변이와 전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영역적 분류

= 역사적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을 정리

1. 방법론적 측면: 19세기 역사방법론은 역사적 경험의 구조를 분석하는 수단을 중시. 과거 개인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분석적 방법론 강조
2. 인식론적 측면: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입장 간의 갈등을 반영하는 경험에 대한 분석적 개념 발전. 베버의 해석적 입장과 연결. 객관적 현실은 주관적 해석을 통해서만 의미를 획득한다는 논의
3. 문화적 측면: 분석개념으로서 경험을 논의할 때 사회사가와는 달리 문화사가는 경험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 개인의 의도 해석이 중요.

### **Experience and language: uniqueness and reiteration**

= 코젤렉의 세가지 경험 분류

1. 반복 불가능하고 고유한 개인의 경험 차원; primordial experiences of individuals which are unique and which cannot be repeated, secondly, reiterated experiences which can be communicated between subjects, and thirdly, experiences which are generated ex post facto, i.e. through historical reflection.

2. 개인의 경험에서 상호소통 가능한 간주간적 경험적 차원으로 발전, 반면 공통의 경험이 개인에게 이해되고 체화되는 과정도 관심; complex processes of how individually unique experiences could be transformed into 'common histories' by accumulation and sedimentation, by the incorporation of external experiences into the structure of individual, internal experiences and vice versa

; 결국 경험과 언어의 문제로 귀착됨.

= 개인적 경험의 공유과정은 언어적 번역의 과정과 일치함

; 경험으로부터 개념의 탄생. 단어, 단어의 접합, 메타포, 이중 대립관념 등이 형성됨. 코젤렉은 이중성 중시. basic dichotomies such as 'above/ below', 'external/internal', 'earlier/later'

= 개인의 경험의 비교적 차원의 성립

; 하나의 의미론적 장이 형성되면 다른 의미론과의 비교, 전파, 변용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됨. 특히 공간을 넘어드는 공시적 번역의 과정은 새로운 의미 창조의 중요한 계기. When and why do concepts, arguments, etc., 'travel' between societies? When and why do they become translatable, and where are the limits of these translation processes?

= 상호소통이 불가능한 개념도 존재

; 만약 유사한 역사적 경험이 발생하지 않거나, 같은 개념으로 표상되지 않을 경우 개념은 통시, 공시, 영역적 번역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됨.

= 저자의 사례

; Britain, France, Germany, Spain, Italy에서 자유주의 개념의 발명, 변용, 번역, 전파, 수용, 토착화, 진화의 역사

; 이로부터 말안장의 시대를 대하고, 언어화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이 상이함을 밝히는 것이 개념사의 중요한 공헌이라고 생각함; Differentiating the Sattelzeit: Models of semantic transformation and translation

= 번역은 대상의 비교 뿐 아니라, 의미분석의 방법론적 차이를 의미하기도 함.

; 번역 과정을 통해 번역자, 번역 사회는 자신의 공시적 역사를 재개념화하고 당대의 경험을 개념으로 표상하기 위해 새로운 고민의 과정을 거치게 됨.

= 저자의 사례연구

;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론이 다른 국가에서 당대적으로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 이를 무시한 의미론적 명목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

= 보통의 기본 역사, 정치 개념의 통시적 변용 과정

; 의미론적 전 정치단계. 프랑스혁명 이전 단계 -> 전 정치적 단계와 정치화 단계의 중복; 새로운 정치, 사회, 문화적 경험이 발생. 1799년 프랑스 -> 전통개념의 함의가 변화하면서 새

로운 개념들이 발전하는 단계. French idées liberals 개념의 본격화 ->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양극화, 다극화, 의미론적 구조의 복잡화가 발생하는 단계. 급진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와 관계 형성, 복잡화.

= 프랑스에서 기원한 자유주의의 번역과 전파 과정

- ; 프랑스 혁명 전후로 고안된 자유주의가 독일, 스페인, 영국으로 전파됨.
- ; 독일과 이태리는 1820년대 정치발전 과정에서 자유주의를 적극 수입하고, 자국의 정치사회 변화를 표상하고 이끄는 개념으로 사용함.
- ; 반면 영국은 프랑스 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있었고, 휘그 이념과 자유주의 이념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함.
- ; 이후 1815년 이후 토리당이 자유주의를 비판적 용어로 사용하다가, 1820년 휘그당 계열의 Edinburgh Review가 프랑스 자유주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소유. 이후 기존의 Court/Country, Whig/Tory and Jacobin/Loyalist 이분법을 대체하기 시작함.

= 연구의 의의

- ; 현실과 개념의 상호관계 뿐 아니라, 개념 자체의 언어학적, 의미론적 차원을 연구
- ; 서구 내 말안장의 시대의 복수화, 서구 비서구 전파에 주는 함의
- ; 담론분석 및 캠브리지 학파와의 차이점 및 연구의 장점을 밝힐 필요.
- ; 경험의 언어화 과정에서 단선적 표상주의, 개념화, 내러티브화, 담론화, 정치사상화 등의 다른 길을 분석하고 동아시아 및 한국의 경험 언어화 과정과 비교할 필요 등.